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Par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Happiness and Self-esteem by Types of Parental Depression

김혜정¹

Hae Jung Kim¹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ypes of parental depression and differences in happin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in each group of parents.

Methods: This study employed the 10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luster analysis, covariance analysis, and Bonferroni verification were performed on the data of 1,282 parents with 9-year-old children.

Results: A total of four parental depression groups were categorized: 'both depressed,' 'mother depressed,' 'father depressed,' and 'not depressed.' Children of the not depressed group showed the highest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four groups. Children of the mother mildly depressed group had lower scores in happiness and self-esteem than those of the father mildly depressed group.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was a new attempt to categorize parental depression together, breaking away from individual approaches such as mother's depression, father's depression, and mother's and father's depression and complementary approaches between couples. When examining the impact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pression of the father and mother as a unit.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생
(e-mail : stringband@naver.com)

key words parental depression, children's happiness, children's self-esteem, cluster analysis

I. 서론

최근 부모들 중 자녀양육에 있어 심리적 어려움인 우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우울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ker et al., 2019). 우울한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긍정적 양육태도 보다는 무관심하거나 회피 등 부정적 양육태도를 초래하여 자녀의 문제행동, 학교적응에도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권태연, 2020; 이의빈, 2021) 아동의 발달과 적응의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우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불안, 슬픔, 기분저하와 같은 무기력한 정서와 수면 및 식욕이상 등 신체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 정신상태이다(김연하, 2018).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여성이나 임산부, 출산 직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Sweeney & MacBeth, 2016). 이후 사회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게 되고, 아버지의 우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종일, 2015). 아버지 우울이 포함된 연구(Valdez et al., 2013)들은 아버지 우울 혹은 어머니 우울이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아버지, 어머니 우울을 지나치게 분리하고 있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을 구분 짓지 않고 함께 적용한 연구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가산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정진나, 2021). 하지만 이 연구는 부모의 우울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뿐 배우자의 효과를 제외한 개인이 가지는 자기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들이 나타났다(Eisenberg et al., 2013; 양진희, 2016; 조은주, 이소연, 2021; 하요상, 하문선, 2021). 선행 연구결과, 부모는 가정에서 비독립적 특성을 가지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정서가 부부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희(2016)는 부모의 우울과 온정적 양육방식의 자기-상대방 효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모두가 자신과 배우자의 온정적 양육방식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자신의 우울에 부적영향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아버지 우울에 상대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은모 등(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우울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우울은 모두 우울하거나 우울하지 않거나 둘로 나뉘는 것보다 기존 자신의 우울과 배우자의 우울 영향에 따라서 약하거나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배우자의 우울이 정상이 아닌 정도일 때 자신의 우울도 정도를 보이거나 배우자 우울이 중도일 경우 자신의 우울도 중도로서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성영실, 이성주, 2021). 이를 통해 부모의 우울은 자신과 배우자의 부부갈등, 가족 상호작용, 양육태도, 양육방식 등 자기-상대방 효과를 통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을 결정하는 것은 한 부모에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부모 공동이라고 할 수 있다(Pomnet et al., 2013).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로 일치된 정서, 양육 형태를 보일 수 있으나,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자녀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길혜지, 황정원, 2017)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이석미 등(2021)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에 동일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경선(2017b)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공동양육은 부부의 행복감과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부부의 우울이나 부부갈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아버지 각자의 역할보다 공동양육자인 부모 모두의 역할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는 함께 양육하는 동반자로서 공동양육을 통해 다양한 정서들이 나타나고, 이는 자녀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우울에 있어서도 부모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선영, 이희선, 2020; 조규영 등, 2019).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 각자의 우울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배우자의 영향을 통해 부모의 우울은 서로 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서나 양육태도 등을 조율하고 협력하여 부모의 합의된 정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우울은 각기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동양육에 따른 부모 우울의 합의점을 찾아 하나의 단위로서 다양한 우울의 유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우울 연구는 주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공격성 등 부정적 발달에 치중되어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모의 우울이 긍정 심리학자들로부터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재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우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복감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최우선적 삶의 가치이며(Diener & Lucas, 2004),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기쁨,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이다(국립국어원, n.d.). 행복감은 개인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모의 정서는 외적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으로 뽑힐 수 있다. 아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시초를 어머니와 맺기 쉽다. 영유아기는 사회화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다양한 생활사건의 정서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Headey et al., 2014; Hoy et al., 2013).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 심리적 특성(권연희, 2013; 이경진, 양유진, 2021)을 통한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행복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2013).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게 온정적이거나 긍정적 피드백을 보이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 공동양육 등 부모의 우울과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선(2017a)은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니, 아버지, 교사변인을 탐색한 결과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고 부모 간 애정적인 양육행동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를 함께 살펴본 임선아(2018)는 부모의 우울 표본을 각각 구분하기 보다 부부를 비독립적 한쌍으로 하여 자기-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만이 아동의 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우울은 아동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버지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행복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도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부모 공동양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는 다양한 우울 정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각 유기체 마다 자녀의 행복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평가, 감정 등의 내적인 부분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속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알고 자아실현하는 것이다(계희선, 이강훈, 2018). 자아

존중감은 학령기 아동의 또다른 긍정적 발달로서 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부정적 생각이나 심리적 위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출 수 있으며(백승희 등, 2019), 낮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거나 학교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탁하연, 조규판, 2019; 민미희, 2018).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신에 대해 무능하게 여겨 외부에 대한 분노나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기능을 가지므로 문제행동 및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잠재계층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최효식, 2020).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 정도에 따라 집단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다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지만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아동의 사회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차이는 부모의 우울 이외에도 아동의 성별, 부모의 소득수준, 학력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김경훈 등, 2013; 성정혜, 김춘경, 2019; 정현정, 문혁준, 2011).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경우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 있으며 여아가 남아 대비 긍정,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아동의 성별, 부모의 가구소득, 학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우울과 관련하여 한쪽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의 자기-상대방 효과와 공동양육을 통한 부모의 정서적 밀접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우울을 하나로 살펴볼 수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 가정의 자녀에게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우울 지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우울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둘째, 유형화된 부모 우울에 따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인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는

연구문제 1. 부모의 우울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1,282)

	구분	빈도(%)	M(SD)	유효	결측	전체
아동패널참여 자녀성별	남	657(51.2)		1,282	0	1,282
	여	625(48.8)				
아동패널참여 자녀월령			112.57(1.38)	1,260	22	1,282
부모 연령	아버지 연령		42.17(3.88)	1,279	3	1,282
	어머니 연령		39.74(3.60)			
부모 최종학력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339(26.4)		1,278	4	1,282
	아버지 학력 (전문대 졸이상)	939(73.2)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349(27.2)		1,276	6	1,282
	어머니 학력 (전문대 졸이상)	927(72.3)				
가구 월소득(만원)			533.52 (448.59)	1,154	128	1,282

본 연구는 2017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의 10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2,150명에서 부모 우울을 응답한 1,282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657명(51.2%), 여자는 625명(48.8%)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평균월령은 112.57개월($SD = 1.38$), 아버지 평균연령은 42.17세($SD = 3.88$)이며 어머니 평균연령은 39.74세($SD = 3.60$)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 339명(26.4%), 전문대졸 이상 939명(73.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349명(27.2%), 전문대졸 이상 927명(72.3%) 순으로 부모 모두 전문대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평균소득은 평균 533만원($SD = 448.59$)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왜도| < 3, |첨도| < 10 미만으로 정규분포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우울

Kessler 등(2002)이 개발한 우울척도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불안, 무기력, 안절부절 못함 등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적용된 척도 수준의 점수화 방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뜻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30점이다. 합산점수 기준으로 하여 6-13점 정상수준, 14-18점 경도/중등도 우울, 19-30점 중도 우울로 구분하였다. 우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8이다.

2) 전반적 행복감

아동 일생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illennium Cohort Study(MCS)에서 사용한 행복감 척도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활용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행복감은 “00(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니?”, “00(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는 연구 대상 아동이 평정하였으며 4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까지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뜻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9이다.

3)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 RSE) 10문항을 다시 아동의 연령에 맞추어 축소한 MCS(2008)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00(이)는 좋은 면이 많니?”, “00(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Likert 방식인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하였다. 평가는 연구대상 아동이 평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47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확인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우울, 행복감, 자아존중감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의 값을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우울 유형을 대략적으로 구분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Ward 및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 방식)을 실시하였고 총점은 변수들 간 동등한 영향을 미치고자 Z 점수로 변환하였다.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덴드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부모의 우울 유형 개수가 특정 유형에 밀집되거

나, 샘플 개수가 부족할 것을 고려하여 최종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계층적 군집분석 중 K-평균 군집분석을 선택해 군집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아동의 성별, 부모의 가구소득, 부모 학력을 통제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우울에 따른 유형

표 2. 부모 우울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중심(평균점수) (N = 1,282)

구분	우울한 부모집단	건강한 부모집단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부우울(M/SD)	16.54(3.26)	8.19(2.44)	16.93(2.92)	10.63(2.36)
모우울(M/SD)	18.83(2.90)	7.65(2.05)	9.93(2.66)	13.82(2.34)
N(%)	184(8.6)	441(20.5)	260(12.1)	397(18.5)

부모의 우울의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려고 부모가 응답한 우울 총점을 변인으로 하여 계층적 군집분석(Ward 및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방식)을 실시하였다. 덴드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우울은 최종 4개 군집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집수 4개로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2와 같이 군집1은 184명, 군집2는 441명, 군집3은 260명, 군집4는 397명으로 분류되었다. 우울은 정상범주 6-13점, 경도/중등도 14-18점, 중도 19-30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군집1은 우울한 부모집단, 군집2는 건강한 부모집단, 군집3은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군집4는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단, 특정 유형의 밀집이나 부족 등을 감안하다보니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어머니 경우 우울 평균 점수가 ‘경도/중등도’와 ‘정상’범주 사이에 있다는 점은 유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이라 명명한 것은 우울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강한 부모집단’ 어머니의 우울 평균 점수는 평균 7.65점이며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어머니의 우울 평균 점수는 13.82점으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어머니 점수와 ‘건강한 부모집단’ 어머니의 점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도/중등도 범주 14점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가장 정상범주인 6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상보다는 높고 경도/중등도 범주 점수와는 밀접하게 위치하여 경미하더라도 ‘건강한 부모집단’보다는 우울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이라 명명하였다.

2.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표 3. 부모 우울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N = 1,282)

종속변수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에타제곱
행복감	성별	127.454	1	127.454	18.172***	.016
	모학력	8.098	1	8.098	1.155	.001
	부학력	.413	1	.413	.059	.000
	가구소득	3.815	1	3.815	.544	.000
	우울군집	97.383	3	32.461	4.628***	.012
	오차	7974.536	1137	7.014		
자아존중감	성별	14.876	1	14.876	3.214	.003
	모학력	.394	1	.394	.085	.000
	부학력	4.692	1	4.692	1.014	.001
	가구소득	2.207	1	2.207	.477	.000
	우울군집	59.030	3	19.677	4.251***	.011
	오차	5262.909	1137	4.629		

***p < .001.

우울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을 공분산으로 투입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우울 군집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우울군집에 따른 행복감($F_{(3, 1137)} = 4.628, p < .001$), 자아존중감($F_{(3, 1137)} = 4.251, p < .001$)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건강한 부모집단,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우울한 부모집단에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F_{(3, 1137)} = 18.172, p < .001$)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에 아동의 성별이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사후검증

표 4. 부모 우울 유형에 따른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변인의 사후검증 (N = 1,282)

종속변수	우울유형	M	SD	F	Bonferroni
행복감	우울한 부모집단(a)	19.355	.212	5.040***	b>c>d>a
	건강한 부모집단(b)	20.256	.133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c)	20.145	.173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d)	19.914	.141		

표 4. 계속

종속변수	우울유형	<i>M</i>	<i>SD</i>	<i>F</i>	Bonferroni
자아존중감	우울한 부모집단(a)	16.945	.172	2.859**	b>c>d>a
	건강한 부모집단(b)	17.669	.108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c)	17.428	.140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d)	17.398	.115		

p* < .01, *p* < .001.

공분산분석 결과 조정된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예측값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부모집단,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우울한 부모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만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부모의 우울은 정상과 경도/중등도 정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4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우울은 건강한 부모집단, 우울한 부모집단,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에 따라서도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들이 지각한 우울 수준에 따라 총 4집단의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중심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건강한 부모’ 집단(441명, 20.5%)으로 부모 모두 우울을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였다. 이 유형은 부모 모두 평소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집단으로 이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부모가 가지는 삶의 만족도와 지속적 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용희, 한창근, 2017; 김혜금, 조혜영, 2016).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따스함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대화시간은 자녀의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문예은, 이주연, 2021).

두 번째 유형은 ‘경도 우울 어머니’ 집단(397명, 18.5%)으로 아버지는 우울을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고 어머니는 평균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이 유형은 아버지가 평소 건강한 정서를 가지지만 어머니는 불안이나 무기력 등의 우울한 정서를 가진 집단으로 어머니만 우울한 집단 특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우울에 있어 배우자간 자기-상대방 효과 측면으로 본다면 이 유

형의 아버지는 현재 우울이 정상 수준이지만 배우자인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우울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가지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낮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연은모 등, 2016).

세 번째 유형은 ‘경도 우울 아버지’ 집단(260명, 12.1%)으로 아버지는 우울을 평균보다 높게 지각하고 어머니는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였다. 이 유형은 아버지가 평소 슬픔이나 불안 정서를 가지지만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만 우울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우울한 경우 평소 가족 간 상호작용이 낮으며 자신과 배우자의 온정적 양육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진희, 2016). 따라서 이 유형의 아버지는 가족 간 가깝게 느끼거나 유연한 생활에 어려움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우울한 부모’ 집단(184명, 8.6%)으로 부모 모두 우울을 평균보다 높게 지각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평소 불안, 초조, 슬픔, 무기력 등을 동반하고 있어 우울한 부모집단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우울은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연은모, 최효식, 2020; 임선아, 2018) 우울한 부모집단은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영실과 이성주(2021)는 우울 정도를 정상, 경도, 중도로 구분하였는데 건강한 부모집단 유형의 경우 정상범주와 유사하고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우울한 부모집단은 경도 범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은 가족체계의 부분과 전체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은 부분적 접근이라면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을 한 세트로 하는 전체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에 차별성을 가진다. 가족체계에서 체계란 어떤 현상을 부분이 아닌 전체의 맥락을 통해 이해하며 전체와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둔 이론이라 할 수 있다(Olson & Gorall, 2003). 자녀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정서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가지는 우울을 동시에 경험하기에 부모를 하나의 단위로서 접근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둘째, 부모가 지각한 우울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건강한 부모집단(441명, 20.5%)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유형의 자녀의 경우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가장 높을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다는 것은 창의성, 학교적응, 친사회성에도 연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높은 아동의 경우 창의성, 학교적응, 친사회성이 다른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나종혜 등, 2021; 김진미, 2019; 한영숙, 2020). 즉, 이 유형은 부모 모두로부터 긍정적 의사소통, 온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부부 간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부모의 애정적 공동양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상 시 서로 간의 소통과 협의 시간을 꾸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경선, 2017b).

반대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은 우울한 부모집단(184명, 8.6%)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고운(2018)은 부모의 우울을 아버지 우울, 어머니 우울,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의 상호작용으로 설정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기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아버지 우울, 어머니 우울,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을 함께 살펴본 것 모두가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우울할 경우 가족 기능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우울한 집단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만 우울한 집단보다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 본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부모 우울을 동시에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정서발달에 있어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 모두 우울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 우울 유형이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는 우울한 부모집단 자녀라 하더라도 남아와 여아 간 행복감에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또래나 부모와의 유대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박소연, 이홍직, 2013; 손선옥, 2019).

또한, 우울한 부모집단의 자녀는 다른 유형 대비 자아존중감, 행복감 뿐만이 아니라 우울한 정서를 지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지와 도현심(2020)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복감 간의 종단적 교류와 매개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녀의 행복감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우울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우울한 부모집단의 자녀는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우울한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은 방치할 경우 한정된 기간에만 나타나기 보다 만성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우울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이 지속될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감뿐만 아니라 학교적응, 문제행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탁하연과 조규판(2019)에 따르면 우울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한 부모집단은 배우자 서로 간의 긍정적 지원 효과를 갖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과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 정서가 교류될 수 있음을 착안하여 부모의 정서지원 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정서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이외 학교적응, 문제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학령기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고려하여 교사 및 학교 기관에서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부모 모두 우울한 여부 보다는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과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유형을 찾아낸 것이며 이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260명, 12.1%)과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397명, 18.5%)은 부모 중 한 명은 우울증세가 없고 나머지 한 명은 우울증세를 보이는 경우이다.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이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보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머니가 가지는 우울의 부적 영향력이 아버지가 가지는 부적 영향력 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우울 점수를 통해서도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이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보다 우울 점수가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경우 아버지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의 영향을 받기 어려우므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경우가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경우보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더 낮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머니 우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영유아기 이후 학령기에도 어머니의 정서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정서적 안정감을 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서고운, 2018), 일-가정 양립에서 갈등 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게 우울을 인식한다는 것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양은선, 김연하, 2021).

따라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어머니의 경우 아주 경미한 우울을 가지고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가점검이나 적극적인 우울관련 상담과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머니의 우울이 건강했던 아버지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우울한 부모집단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이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보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토대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아버지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공동육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반대로 아버지는 자신의 우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우울로도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와 긍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우울로부터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연주, 최연실, 2021). 즉, 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우울하더라도 배우자인 어머니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어머니들은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아버지들보다 배우자의 우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더 애쓰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자녀는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자녀보다 아버지가 우울하더라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에서는 배우자의 보완적 역할로서 어머니의 건강한 정서를 통해 아버지의 우울을 완화해 보도록 어머니의 따뜻한 정서 지원을 계획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 아동의 성별은 아동의 행복감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울한 부모집단과 건강한 부모집단을 제외한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에서 아동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여아이며 가장 높은 집단은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남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아가 아닌 여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우울 치료 이외에도 자녀 양육 시 적극적인 의견청취, 긍정적 상호작용 등 성별에 따른 양육방법에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자료 중 2017년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2022년 현시점의 부모의 우울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현시점에서 부모의 우울 정도가 경도가 아닌 중도 우울 증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부모 우울 유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기존연구는 한쪽 부모의 우울 여부, 우울 수준, 부모의 우울이 서

로에게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정도만을 밝힌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모의 우울을 하나의 유기체로 살펴봄에 따라 하나의 단위로 유형화하였고 아버지만 우울한 가정, 어머니만 우울한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각 유형화한 집단은 다시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어머니만 우울한 가정이 아버지만 우울한 가정 보다 아동 발달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을 부각하는 방안으로 부모의 우울 집단별 특성에 따라 보다 알맞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자녀의 긍정적 정서발달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자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2022년 3월 1일 인출
- 권연희 (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25-537. <https://doi.org/10.5934/kjhe.2013.22.4.525>
- 권태연 (2020). 부모의 우울이 초등학교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1(1), 338-348. <https://doi.org/10.5762/KAIS.2020.21.1.338>
- 김경훈, 김형재, 이은림 (2013).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및 행복감의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5-32.
- 김용희, 한창근 (2017). 부모 삶의 만족도와 아동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3), 29-55.
- 김연하 (2018). 어머니의 첫 출산 후 6년간 우울 궤적과 만 6세 첫 자녀의 문제행동. **아동학회지**, 39(6), 101-111. <https://doi.org/10.5723/kjcs.2018.39.6.101>
- 김진미 (2019). 초등학생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교육연구논총**, 40(3), 161-180. <https://doi.org/10.18612/cnujes.2019.40.3.161>
- 김혜금, 조혜영 (2016). 주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와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종단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5), 137-155.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5.137>
- 길혜지, 황정원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127-154.
- 나종혜, 손승희, 김수정 (2021).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창의성 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30(2), 227-239. <https://doi.org/10.5934/kjhe.2021.30.2.227>
- 문예은, 이주연 (202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1), 85-104. <https://doi.org/10.14698/jkce.2021.17.01.085>
- 민미희 (2018).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긍정적 양육,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간 다집단 분석. **육아지원연구**, 13(4), 101-126. <https://doi.org/10.16978/ecec.2018.13.4.005>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21(2), 73-84.
- 백승희, 전현정, 이정민, 정혜원 (2019). 모와 자녀가 지각한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행위자 상대자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30(2), 93-118. <https://doi.org/10.16881/jss.2019.04.30.2.93>
- 손선옥 (2019).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 및 성별 차이. **스트레스연구**, 27(2), 158-165. <https://doi.org/10.17547/kjsr.2019.27.2.158>
- 서고운 (2018).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과 음주 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족 기능의 매개 효과와 아동 성별의 조절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2), 3-28. <https://doi.org/10.21321/jfr.23.2.3>
- 성영실, 이성주 (202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 예측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131, 71-90. <https://doi.org/10.37918/kce.2021.11.131.71>
- 성정혜, 김춘경 (2019).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육아정책연구**, 13(2), 47-71. <https://doi.org/10.5718/kcep.2019.13.2.47>
- 안연주, 최연실 (2021). 개인 심리적 요인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개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165-182. <https://doi.org/10.21321/jfr.26.1.165>
- 양은선, 김연하 (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갈등이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3), 1-14. <https://doi.org/10.7466/JFBL.2021.39.3.1>
- 양진희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방식, 우울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4), 409-433.
- 여종일 (2015). 아버지의 우울증상 및 가족관계가 유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333-351.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태도 간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28.
- 연은모, 최효식 (2020).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에 따른 우울 및 자녀의 학교준비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5), 344-352. <https://doi.org/10.5762/KAIS.2020.21.5.344>
- 이경선 (2017a).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05-324. <https://doi.org/10.22155/JFECE.24.1.305.324>
- 이경선 (2017b).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coparenting) 관련 변인: 결혼생활의 질과 정서적 특성. **유아교육연구**, 37(4), 421-434.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4.017>
- 이경진, 양유진 (2021).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529-544.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5.529>

- 이석미, 박춘성, 성은현 (2021).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부갈등, 우울과 유아기 자녀의 공격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35(2), 237-257. <https://doi.org/10.17286/KJEP.2021.35.2.01>
- 이은지, 도현심 (2020).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및 초등 전환기 아동의 행복감 간의 종단적 교류 및 매개 관계. **아동학회지**, 41(4), 91-104. <https://doi.org/10.5723/kjcs.2020.41.4.91>
- 이의빈 (202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우울,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8(5), 85-114.
- 임선아 (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1), 49-59. <https://doi.org/10.5723/kjcs.2018.39.1.49>
- 전선영, 이희선 (2020). 부모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037-1062.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2.1037>
- 정진나 (2021). 학령기로의 전환 동안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및 어머니 우울과 유아 사회적 유능성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41(3), 79-102. <https://doi.org/10.18023/kjece.2021.41.3.004>
- 정현정, 문혁준 (201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21-42.
- 제희선, 이강훈 (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종단 매개효과. **교육혁신연구**, 28(2), 399-421. <https://doi.org/10.21024/pnuedi.28.2.201806.399>
- 조규영, 김신경, 전효정 (2019).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공동양육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0(1), 67-83. <http://do.org/10.21197/JCEI.10.1.4>
- 조은주, 이소연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우울증상, 자녀에 대한 분노와 자녀 문제행동의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아시아여성연구**, 60(3), 213-248. <https://doi.org/10.14431/jaw.2021.12.60.3.213>
- 탁하연, 조규판 (2019).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207-226.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2.207>
- 하요상, 하문선 (2021). 맞벌이 부모의 일과 가족 간 갈등,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175-190.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175>
- 한국아동패널 (2017). **한국아동패널 10차년 자료**[데이터파일과 코드북]. <https://panel.kicce.re.kr/panel/module/rawDataManage/index.do>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 한영숙 (2020).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41(3), 13-23. <https://doi.org/10.5723/kjcs.2020.41.3.13>
- Baker, C. E., Brooks-Gunn, J., & Gouskova, N. (2019).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Maternal

- Depress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Families Served by Head Start. *Child Development*, 91(5), 1563-1576. <https://doi.org/10.1111/cdev.13344>
- Diener, M. L., & Lucas, R. E. (2004). Adults' desires for children's emotions across 48 countries: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5), 525-547. <https://doi.org/10.1177/0022022104268387>
- Eisenberg, D., Colberstein, E., Whitlock, J. L., & Downs, M. F. (2013). Social contagion of mental health: Evidence from college roommates. *Health Economics*, 22(8), 965-986. <https://doi.org/10.1002/hec.2873>
- Headey, B., Muffels, R., & Wagner, G. G.(2014). Parents transmit happiness along with associated value and behaviors to their children: A lifelong happiness divide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6(3), 909-933. <https://doi.org/10.1007/s11205-013-0326-7>
- Hoy, B. D., Suldo, S. M., & Mendez, L. R. (2013). Link between parents'and children's levels of gratitude, life satisfaction, and hop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343-1361. <https://doi.org/10.1007/s10902-012-9386-7>
- Kessler, R. C., Andrews, G., Colp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https://doi.org/10.1017/S0033291702006074>
- Olson, D. H., & Gorall, D. M. (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3rd Ed)*(pp. 514-547). Guilford.
- Ponnet, K., Wouters, E., Mortelmans, D., Pasteels, I., Backer, C., Leeuwen, K. V., & Vanhiel, A. (2013).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on own and partner's parent-child communication. *Family Process*, 52(2), 312-324. <https://doi.org/10.1111/famp.120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weeney, S., & MacBeth, A. (2016). The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5(306), 44-59. <https://doi.org/10.1016/j.jad.2016.05.073>
- Valdez, C.R., Shewakramani, V., Goldberg, S., & Padilla, B. (2013). Parenting influences on Latin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the first grade: Parental depression and parent involvement at home and school.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5), 646-657. <https://doi.org/10.1007/s10578-013-0358-x>

논문투고: 22.06.11

수정원고접수: 22.07.19

최종게재결정: 22.08.10